

## 나의 우울 일대기 / 장진웅

얇은 빛과 짙은 그림자

예전의 나는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 즐거웠던 내 표정, 어딜 가든 자신감 넘치는 걸음 걸이, 주변 사람들을 항상 웃게 만들었던 따뜻한 분위기. 20대 청춘, 나의 대학생 시절.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었다. 나의 삶 자체가 너무 행복했으니까.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물으면 "저요!" 한 손을 번쩍 들고 나라고 할 수 있었다. 친구들은 소중했고, 같이 먹는 밥 한끼는 즐겁고 맛있었다. 무대 위를 고대하며 연습했던 응원 춤은 재밌었다. 어딜 가나 아는 사람들은 꼭 있었고, 누구나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작은 마을 속에서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불행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 당시의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불행을 경험했던 것도 그 당시엔 옛날의 일이었다.

지금의 나는 우울증과 ADHD 약을 먹고 있다. 나도 내가 우울증에 걸리기 전까지 ADHD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다. 약 없이 보낼 날들이 무섭다. 어떻게 한 사람의 내면에서 깊은 행복과 우울을 같이 느낄 수 있는지 도저히 스스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건 마치 물과 기름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말도 안되는 혼란스러운 감정이었다. 40번째 상담을 받으며 이제는 내면을 조금씩 마주하고 있다. 우울했던 지난 날을 추억처럼 떠나 보내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

2020년 2월, 코로나로 인해 집 같던 학교에서 낯설던 집에 오게 됐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14년도부터 7년 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들은 내게 있어선 이미 가족보다도 더 애정이 갔던 가족이었다. 예전부터 겪었던 비슷한 경험이 반복될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왔다. 가족같던 친구들이 거리가 멀어지고 나서는 연락이 점점 되지 않았고, 모두의 마음 속에 짊었던 유대감이 얇아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과거 속에 머물러 있었고 친구들은 그 자리에 서서히 다른 소중한 누군가가 들어섰다.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던 게 떠오르며,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졌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느껴졌다. 나만 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외롭고 슬퍼졌다. 슬픈 외로움, 이 감정이 나의 첫 우울함의 시작이었다.

## 쓰디쓴 좌절감

홀로 원격으로 5학년 남은 학기 수업을 듣고 필수 학점을 채웠더니, 학사모를 쓰지 않고 어느새 졸업을 했다. 학교에 있는 동안 만족하며 보내서 그런지 막상 졸업을 했을 땐 인생의 계획이 없었다. 막연하게 취업을 준비했지만 찾아보니 생각보다 나를 가슴 뛰게 하는 회사들은 꽤나 있었다. 준비한 회사 중에 한 곳은 로컬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회사였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와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공간, 낮에는 카페, 전시장, 팝업스토어, 밤에는 공연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냈다. 그 중에서도 방앗간이라는 공간이 있다. 예전부터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모티브만 떼와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다. 지금도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밤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공간에는 참깨라떼라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다. 본래의 방앗간의 기능을 하여, 30년 동안 참기름을 만들던 장인과 콜라보가 이루어진 음료였다. 고소하고 달짝찌근한 맛이 다음에도 오고 싶어지는 맛이였다.

로컬 공간에 따뜻한 커뮤니티와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회사의 비전은 공간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회사의 매력에 푹 빠져서 CEO의 인터뷰를 찾아보고, 2시간의 강연을 듣고, 운영하는 7군데의 공간을 직접 찾아갔었다. 영상을 보며 노선에 모든 내용을 필사하며 듣고, 공간을 느끼며 도심 속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의 가치에도 공감하게 되었다. 회사를 알아갈수록 자주 듣고 보았던 로컬이란 말 속에서 작은 마을 속에서 살아갔던 대학생들이 자주 떠올랐다. 내가 경험했던 마을 안의 따뜻함을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다.

그 땐 다른 회사에 50번 정도 지원한 후 떨어지고 이미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였다. 처음엔 당연히 떨어질 걸 알고 있었기에 아무렇지 않았다. 떨어지면 재지원, 또 다시 재지원을 하면 됐기에 그렇게 총 7번의 지원을 했었다. 처음 떨어질 때는 익숙하던 상황이라서 괜찮았다. 하지만 지원 회차가 5번이 넘어갈때쯤엔,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고 면접은 붙을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은 점점 떨어졌다. 그럴수록 회사에 대해 더 많이 찾아보았고, 나도 모르는 새 친구들을 직접 데려가 공간을 소개를 하기도 하며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지원 때는 회사 근처에서 두리번거리면, 사장님이라도 만나서 인사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퇴근 시간 회사 근처에서 2시간 동안 주변을 서성였던

적도 있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사장님인 분을 보았다. 너무나  
신기해서 유튜브에 나왔던 모습과 비교하며 CEO님임을 확신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바깥에서 만나면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며 30분을 머뭇거렸다. 밥을 다 먹고 나오는  
길에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사장님과 얼굴이 닮았던  
분이었고 나는 너무나도 놀라서 당황을 하며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게 된 사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그 분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  
순간 나는 ‘그럴리가 없지’ 싶은 허망한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장님을 만나러 찾아갔었다는 스토리텔링에 간절함을 담아서  
이메일로 전하며, 인턴 면접이라도 볼 수 있을 지 연락을 했었다. 며칠을 기다려 기다림이  
잊혀짐으로 바뀔 즈음에, 인턴 제의 면접 연락이 왔다. 너무나도 기뻐다. 내가 원하던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다니. 그 동안 열심히 준비 했으니 꼭 보여드려야겠다 싶은 마음  
가짐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 당일 날, 긴장되는 마음으로 실무자 두 명과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페 2층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본인의 장단점,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간단한 질문들이었지만 그 날 따라 꼭 왼 손에 땀이 가득했다.  
나의 장단점을 어필하는데 혼자만 느끼는 압박의 분위기 속에서 장점이 무엇인지 확신이  
없어지며 말을 절게 되고, 점점 내가 하는 말과 생각하는 것은 달라지고 있었다. ‘아..’ 그  
동안 겪었던 면접만 보면 머리가 새하얘지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 그렇게 20분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흠족스럽지 않은 두 실무자들의 표정이 보였다.

그리고서 며칠 뒤 왔던 ‘아쉽지만 귀하의 우수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여건상 금번에  
모시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로해 주는 말이었지만 오히려 더 슬퍼졌다.  
인생에서 다시 없을 패배의 쓴 맛이였다. ‘두 번의 면접부터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줄 수  
밖에 없기에 다시 면접 기회를 드리는 건 힘들다’는 끝맺음에 완전한 패배감을 느꼈다. 다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심이었던 만큼, 더 아팠다. 그 때 회사에는 열정이나  
진심같은 건 그다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 이후로, 전에 가졌던 열정 만큼 다른 회사를 좋아할 수 없었다. 그 때 내가 가진 건 열정  
뿐이었는데, 이미 그 회사에 가치에 녹아들었기에. 당시에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큰  
좌절감을 느꼈다. 심지어 그렇게 면접 본 건 혼자였어서 경쟁률 일대일의 인턴  
면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버렸다는 생각에, ‘정말 쓸모 없어.. 난 몹쓸 인간이야’  
라는 자책감에 한 동안 시달렸다. 다시는 가질 수 없던 기회를 놓친 것만 같아서 아쉬움을

넘어 미래의 끈을 쉽게 놓지 못했다. 친구들을 자주 방앗간 공간에 데려가 씹쓸한  
참깨라떼를 주문하고, 어떻게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는 지 슬픔을 머금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7번 지원하고 떨어지게 된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는 신기해 했고, 열정에  
감탄하기도 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쓰디 쓴 속이었지만 웃으며 애써 괜찮은 척  
했다. 그렇게 꽤 오랫동안 회사에 지원할 용기를 잃어버렸다.